

주요 노동동향

경제일반

- ◆ 2008년 6월 생산 증가세 둔화, 소비 감소세 지속, 투자 증가
- 2008년 6월 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 모두 전년동월 대비 각각 6.7%,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25.0%), 영상음향통신(13.8%), 자동차(5.0%) 등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기계장비(-3.6%), 섬유제품(-9.4%) 등에서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음.
 - 생산자제품 재고는 1차 금속, 섬유 등은 감소한 반면, 반도체 및 부품(81.2%), 자동차(6.7%), 의류 및 모피(13.0%) 등을 중심으로 재고가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15.9% 증가함으로써 증가세가 지속됨.
 -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업(6.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5.9%), 금융 및 보험업(5.4%) 등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부동산 및 임대업(-3.6%), 기타 공공·개인서비스업(-0.3%) 등에서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6월 소비는 비내구재의 판매부진으로 전년동월 대비 1.0% 감소, 투자는 전년동월 대비 4.4% 증가함.
 - 소비는 가전제품, 컴퓨터·통신기기 등 내구재(0.3%)는 증가하였으나 의복·직물 등 준내구재

(-0.7%), 차량용 연료 등 비내구재(-1.8%)의 판매부진으로 감소한 반면, 투자는 운수장비 투자(-13.5%)는 감소하였으나 전기 및 전자기기 등의 기계류 투자(7.3%)가 증가함.

-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9로 전월보다 0.5p 하락하였으며, 향후의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전월대비 1.1%p 하락하였음(그림 3 참조).

◆ 2008년 7월 소비자물가 상승세 확대(전년동월대비 5.9% 상승)

- 2008년 7월 물가는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서비스 각각 전년동월대비 1.4%(축산물(14.4%)), 11.4%(석유류(35.5%)), 3.9%(개인서비스(5.0%)) 상승함.
- 또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7.1% 상승하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6					2007					2008			
		1/4	2/4	3/4	4/4	연간	1/4	2/4	6월	3/4	4/4	연간p	2/4p	5월p	6월p
생산	산업생산	12.8	11.5	11.3	5.2	10.1	4.0	6.2	6.6	6.0	11.0	6.8	8.6	8.6	6.7(0.2)
	제조업 생산	13.4	12.1	11.8	5.6	10.5	4.1	6.3	6.7	6.1	11.2	7.0	9.0	8.9	7.0(0.1)
	출 하	9.7	9.0	9.2	3.8	7.8	5.1	6.9	6.8	5.5	10.6	7.1	6.4	6.2	4.5(-1.2)
	수 출	13.1	14.2	15.7	5.6	11.9	6.7	8.7	9.7	9.4	16.2	10.5	13.6	15.9	10.9(-2.4)
	내 수	7.1	4.9	3.8	2.2	4.5	4.1	5.7	4.9	2.7	6.8	4.8	1.8	0.3	0.4(-2.8)
	서비스업 생산	6.2	5.4	4.5	4.8	5.2	5.4	6.1	7.7	7.2	6.8	6.4	4.6	4.9	2.8(-0.3)
소비	소비재 판매	5.3	6.1	2.9	4.5	4.7	5.7	4.2	3.5	7.1	4.5	5.3	2.5	3.0	-1.0(-4.3)
투자	설비투자	6.2	6.7	11.8	5.1	7.4	12.8	11.9	11.3	0.7	9.2	8.6	0.1	-2.1	4.4(2.5)
물가		2.0	2.3	2.5	2.2	2.2	2.1	2.4	2.5	2.3	3.3	2.5	3.8	5.5	5.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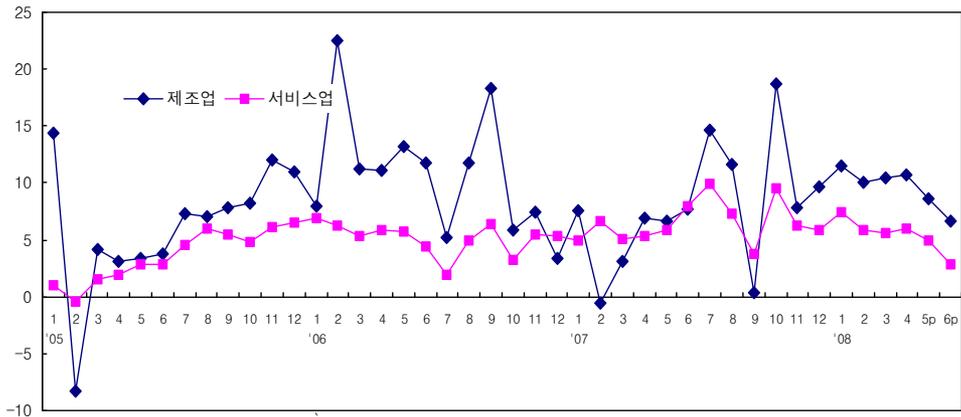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임. ()안은 전기(월)비를 나타냄.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8차 개정, 2000. 1. 7.)상의 20개 대분류 중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11개(도소매업(G), 숙박·음식점업(H), 운수업(I), 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사업서비스업(M), 교육서비스업(O), 보건복지사업(P),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Q),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 산업을 포괄.
- 3) 물가는 6월, 7월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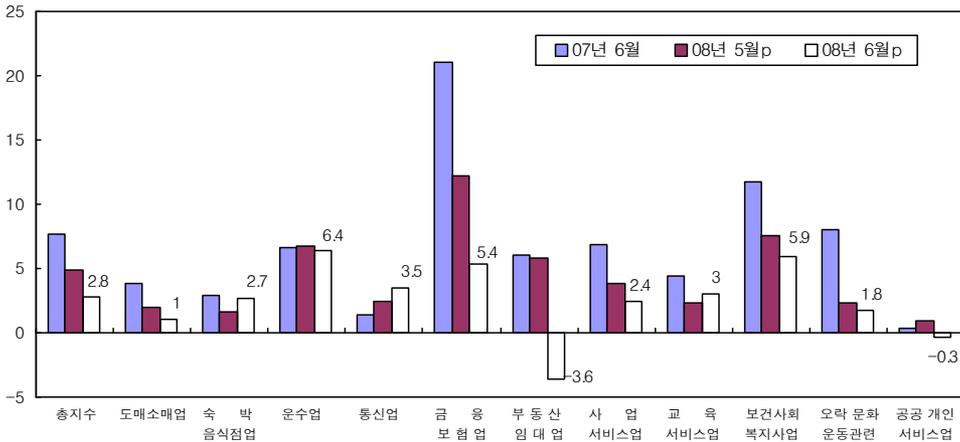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주: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통계청, 『2008년 6월 산업활동동향』, 2008.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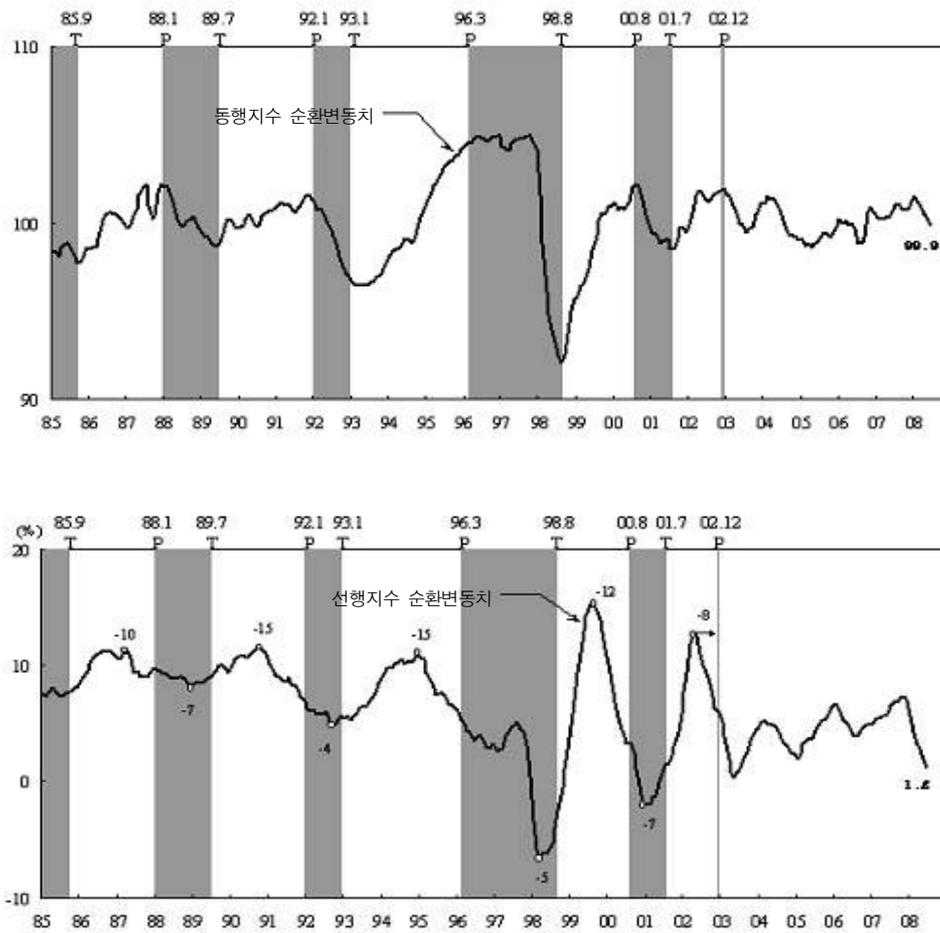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지수 동향



주 : p는 정점(Peak), T는 저점(Trough)을 나타냄.
 자료 : 통계청, 『2008년 6월 산업활동동향』, 2008. 7.

고용 동향

◆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감소

- 2008년 2/4분기 중 경제활동인구는 24,638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49천 명(0.6%) 증가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320천 명으로 85천 명(0.6%)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10,318천 명으로 65천 명(0.6%) 증가함.
- 2008년 2/4분기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2.3%로 전년동분기대비 0.3%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성(74.2%)이 전년동분기대비 0.5%p, 여성(51.0%)이 전년동분기대비 0.1%p 하락함(그림 4 참조).
- 2008년 2/4분기 중 고용률은 60.4%로 전년동분기대비 0.2%p 하락
 - 남성의 고용률은 71.7%, 여성의 고용률은 49.6%로 각각 전년동분기대비 0.2%p 하락하였음.

〈표 2〉 최근의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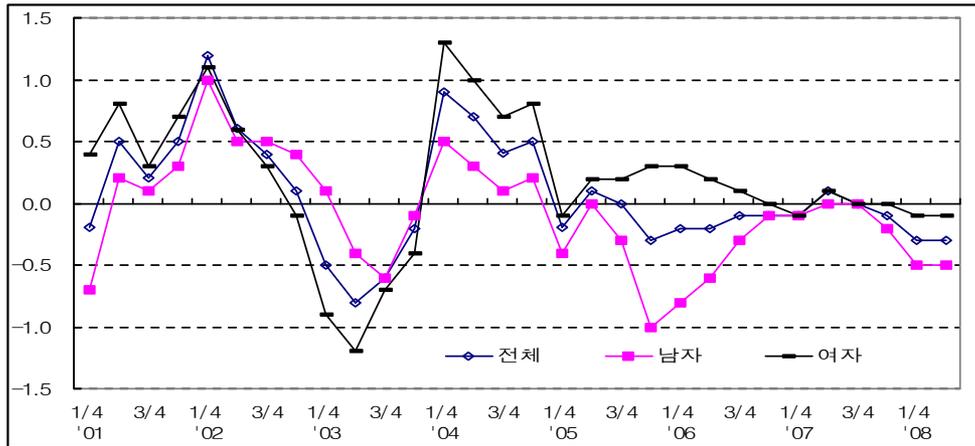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

	2007					2008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경제활동인구	23,692 (0.9)	24,489 (1.1)	24,593 (1.1)	24,367 (1.1)	24,316 (1.0)	23,852 (0.7)	24,638 (0.6)	24,692 (0.6)	24,727 (0.5)
참가율	60.8	62.6	62.8	62.1	61.8	60.5	62.3	62.4	62.5
취업자	22,841 (1.2)	23,698 (1.2)	23,816 (1.3)	23,610 (1.3)	23,582 (1.2)	23,051 (0.9)	23,871 (0.7)	23,939 (0.8)	23,963 (0.6)
고용률	58.6	60.6	60.8	60.2	60.0	58.5	60.4	60.5	60.5
실업자	851	791	777	756	734	801	767	753	764
실업률	3.6	3.2	3.2	3.1	3.0	3.4	3.1	3.0	3.1
비경제활동인구	15,305 (1.4)	14,647 (1.0)	14,585 (0.9)	14,865 (1.0)	15,000 (1.3)	15,575 (1.8)	14,903 (1.7)	14,848 (1.7)	14,854 (1.8)

주 : ()의 수치는 전년동분기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 『2008년 6월 고용동향』, 2008. 7.

[그림 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단위: %p, 전년동분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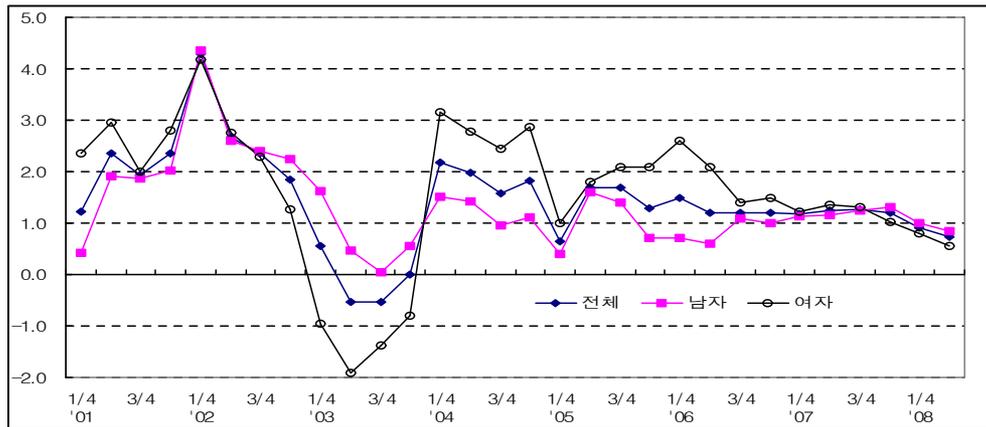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 2008년 2/4분기 중 취업자는 23,871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73천 명(0.7%)이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3,825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17천 명(0.9%), 여성 취업자는 10,046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56천 명(0.6%)이 증가함.
 - 2008년 2/4분기 중 실업자는 767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4천 명(-3.0%)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3.1%로 전년동분기대비 0.1%p 하락함.
 - 남성 실업자는 496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2천 명(-6.1%) 감소한 반면, 여성 실업자는 272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9천 명(3.4%)이 증가함.
 - 실업률은 남성이 전년동분기대비 0.2%p 하락한 3.5%를 보였고, 여성은 전년동분기와 동일한 2.6%를 기록함.
 - 2008년 2/4분기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4,903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56천 명(1.7%) 증가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4,970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44천 명(3.0%)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9,933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13천 명(1.2%)이 증가함.
 -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187천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4천 명 증가함.
- ※ '쉬었음'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844천 명(2003. 2/4)→915천 명(2004. 2/4)→1,070천 명(2005. 2/4)→1,137천 명(2006. 2/4)→1,173천 명(2007. 2/4)→1,187천 명(2008. 2/4)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분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취업자 감소세 지속

- 2008년 2/4분기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분기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317천 명, 4.2%), 전기·운수·통신·금융업(10천 명, 0.4%)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52천 명, -3.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42천 명, -0.7%), 건설업(-38천 명, -2.0%), 제조업(-25천 명, -0.6%)에서는 감소함.
 - 2007년 3/4분기 이후 건설업의 감소세가 두드러짐(그림 6 참조).

◆ 상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감소

- 2008년 2/4분기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7,521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16천 명(-1.5%)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6,350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89천 명(1.8%)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448천 명, 5.2%)는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96천 명, -1.8%) 일용근로자(-63천 명, -2.8%)는 감소함.
 - 상용근로자는 증가세를 이어가며 임금근로자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임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감소세가 지속됨(그림 7 참조).
- 2008년 2/4분기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055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491천 명(19.1%)이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546천 명으로 360천 명(-1.7%)이 감소함.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 명, %)

	2007					2008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전 산업	22,841 (1.2)	23,409 (1.2)	23,816 (1.3)	23,610 (1.3)	23,582 (1.2)	23,051 (0.9)	23,871 (0.7)	23,939 (0.8)	23,963 (0.6)
농림어업	1,450 (-2.8)	1,952 (-2.7)	1,944 (-3.1)	1,866 (-3.7)	1,690 (-3.8)	1,388 (-4.3)	1,848 (-2.7)	1,893 (-3.0)	1,890 (-2.8)
제조업	4,138 (-1.2)	4,181 (-1.3)	4,140 (-1.0)	4,093 (-1.2)	4,120 (-0.9)	4,114 (-0.6)	4,101 (-0.6)	4,097 (-0.4)	4,107 (-0.8)
건설업	1,772 (2.7)	1,904 (1.6)	1,934 (1.0)	1,843 (-0.3)	1,853 (-0.5)	1,754 (-1.0)	1,896 (-2.0)	1,903 (-1.7)	1,874 (-3.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743 (-1.0)	5,776 (-1.0)	5,714 (-1.0)	5,722 (-0.2)	5,723 (-0.3)	5,707 (-0.6)	5,673 (-0.7)	5,683 (-0.7)	5,677 (-0.6)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7,357 (4.3)	7,256 (4.8)	7,672 (5.4)	7,674 (5.2)	7,762 (5.0)	7,684 (4.4)	7,924 (4.2)	7,924 (4.1)	8,002 (4.3)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363 (2.8)	2,323 (3.3)	2,395 (3.0)	2,396 (2.5)	2,415 (1.8)	2,385 (0.9)	2,410 (0.4)	2,421 (0.8)	2,394 (-0.1)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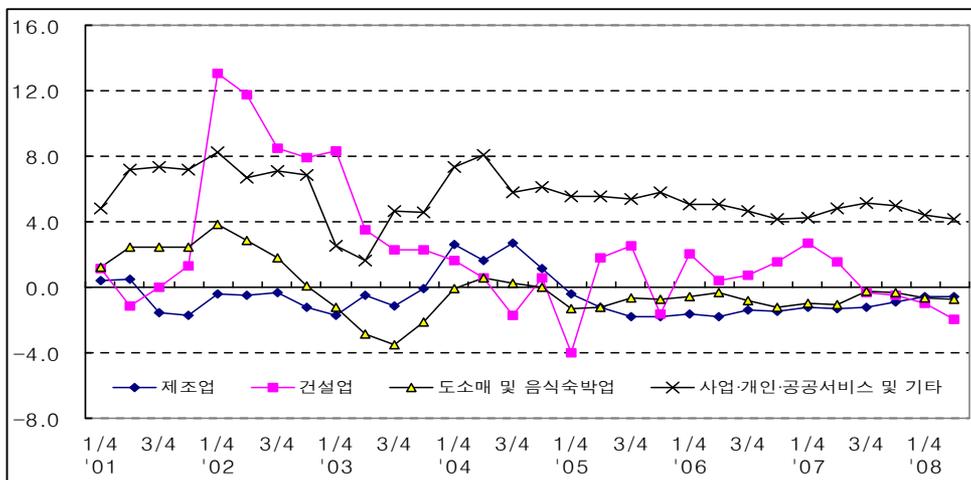
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2) 자세한 업종별 취업자 현황은 부표 참조.

자료: 통계청, 『2008년 6월 고용동향』, 2008. 7.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분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

	2007					2008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전 체	22,841 (1.2)	23,698 (1.2)	23,816 (1.3)	23,610 (1.3)	23,582 (1.2)	23,051 (0.9)	23,871 (0.7)	23,939 (0.8)	23,963 (0.6)
비임금근로자	7,199 (-2.2)	7,637 (-1.1)	7,692 (-1.2)	7,589 (-2.2)	7,426 (-1.8)	7,097 (-1.4)	7,521 (-1.5)	7,534 (-1.7)	7,578 (-1.5)
자영업주	5,895 (-1.9)	6,139 (-0.9)	6,193 (-0.8)	6,128 (-1.3)	6,035 (-1.4)	5,816 (-1.3)	6,073 (-1.1)	6,092 (-0.9)	6,093 (-1.6)
무급가족종사자	1,304 (-3.2)	1,498 (-1.8)	1,498 (-2.9)	1,460 (-5.9)	1,391 (-3.4)	1,281 (-1.8)	1,449 (-3.3)	1,442 (-4.8)	1,485 (-0.9)
임금근로자	15,642 (2.8)	16,061 (2.4)	16,124 (2.6)	16,022 (3.0)	16,156 (2.6)	15,954 (2.0)	16,350 (1.8)	16,405 (1.9)	16,385 (1.6)
상용근로자	8,404 (4.3)	8,533 (4.6)	8,617 (6.0)	8,753 (6.2)	8,790 (5.1)	8,839 (5.2)	8,981 (5.2)	9,010 (5.6)	9,039 (4.9)
임시근로자	5,163 (2.5)	5,237 (0.7)	5,217 (-0.5)	5,133 (-0.3)	5,156 (-0.6)	5,064 (-1.9)	5,141 (-1.8)	5,165 (-1.8)	5,132 (-1.6)
일용근로자	2,075 (-2.4)	2,291 (-1.7)	2,290 (-2.1)	2,135 (-1.5)	2,211 (1.0)	2,051 (-1.2)	2,227 (-2.8)	2,231 (-3.2)	2,214 (-3.3)
36시간 미만	3,014 (6.4)	2,564 (1.7)	2,528 (4.8)	3,962 (23.7)	2,549 (-5.1)	2,770 (-8.1)	3,055 (19.1)	3,981 (55.5)	2,679 (6.0)
36시간 이상	19,384 (0.2)	20,906 (1.1)	21,077 (1.0)	19,227 (-2.4)	20,806 (2.2)	19,888 (2.6)	20,546 (-1.7)	19,711 (-6.0)	20,964 (-0.5)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자료 : 통계청, 『2008년 6월 고용동향』, 2008.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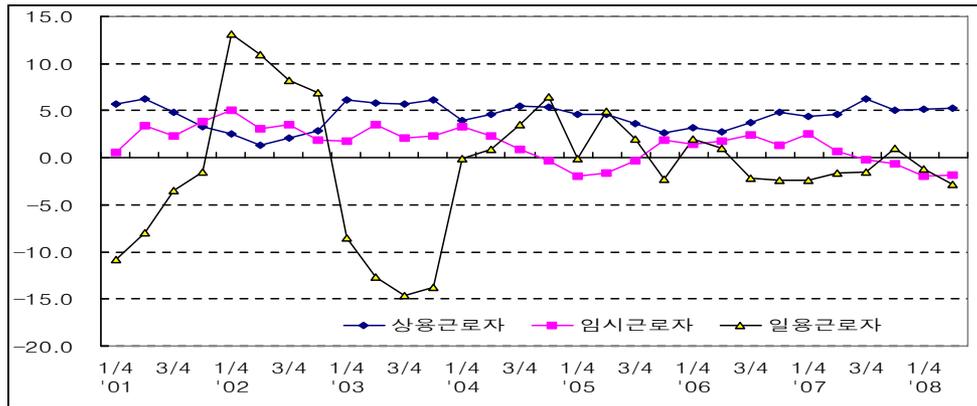
◆ 40대 및 중졸 이하 실업률 증가

○ 2008년 2/4분기 중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40대를 제외한 전연령에서 감소함.

- 2008년 2/4분기 중 연령별 실업자는 전년동분기대비 20대(-8천 명), 30대(-16천 명), 50대(-13천 명)에서 감소한 반면, 15~19세(5천 명), 40대(8천 명)에서 소폭 증가하였고, 60세 이상은 변화 없음.
- 2008년 2/4분기 중 연령별 실업률은 20대(7.2, -0.1%p), 30대(3.0%, -0.3%p), 50대(1.8%, -0.4%p)에서 감소하였고, 15~19세(9.9%, 2.4%p), 40대(2.1%, 0.2%p)에서 증가한 반면, 60세 이상(1.2%, 0.0%p)에서는 변화가 없었음.
- 교육정도별 실업자는 전년동분기대비 고졸(-11천명), 대졸 이상(-21천명)에서 감소한 반면, 중졸 이하(8천명)에서 증가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분기대비 중졸 이하(2.2%, 0.2%p)에서 증가하였고, 대졸 이상(3.1%, -0.4%p)에서 감소한 반면, 고졸(3.7%, 0.0%p)에서는 변화가 없었음.

[그림 7] 임금근로자의 증가율

(단위: % 전년동분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

	2007					2008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전 체	851(3.6)	791(3.2)	777(3.2)	756(3.1)	734(3.0)	801(3.4)	767(3.1)	753(3.0)	764(3.1)
15~29세	346(7.6)	330(7.3)	328(7.2)	322(7.1)	312(7.0)	328(7.3)	327(7.4)	307(6.9)	346(7.8)
30~39세	216(3.5)	203(3.3)	194(3.1)	189(3.0)	183(2.9)	193(3.1)	187(3.0)	197(3.2)	173(2.8)
40~49세	151(2.3)	130(1.9)	127(1.9)	132(2.0)	126(1.9)	160(2.4)	138(2.1)	133(2.0)	131(1.9)
50~59세	96(2.4)	95(2.2)	97(2.2)	80(1.9)	78(1.8)	83(2.0)	82(1.8)	83(1.9)	81(1.8)
60세 이상	42(1.7)	33(1.2)	32(1.1)	34(1.2)	35(1.3)	38(1.6)	33(1.2)	34(1.2)	33(1.2)
중졸 이하	150(2.8)	112(1.9)	102(1.8)	105(1.9)	109(2.0)	128(2.5)	120(2.2)	109(1.9)	125(2.2)
고졸	426(4.2)	379(3.7)	380(3.7)	378(3.7)	372(3.7)	402(4.0)	368(3.7)	364(3.6)	387(3.8)
대졸 이상	274(3.3)	300(3.5)	296(3.5)	274(3.2)	253(2.9)	271(3.1)	279(3.1)	280(3.1)	253(2.8)
취업무경험 실업자	40	40	41	44	40	44	49	43	57
취업유경험 실업자	810	751	736	712	694	757	718	711	707

주: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 『2008년 6월 고용동향』, 2008. 7.

- 2008년 2/4분기 중 전체 실업자 767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49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9천 명 증가한 반면,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718천 명으로 33천 명 감소했음.

노사관계 동향

◆ 근로손실일수, 전년동기대비 증가

- 2008년 7월 27일 현재 노사분규 현황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함.
 - 분규발생건수는 55건으로 전년동기(49건)에 비해 증가하였고, 근로손실일수 또한 457,836일로 전년동기(259,239일)대비 77.3% 증가함.

〈표 6〉 노사분규 주요지표 동향

(단위 : 개소, 일)

	2007. 7. 27	2008. 7. 27
노 사 분 규 발 생 건 수(개소)	49	55
근 로 손 실 일 수 (일)	258,238	457,836

주 : 당해 연도의 누적치임.
 자료 : 노동부.

◆ 노동부,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노동부는 기업수요에 부합되는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재고용시 부과되던 1개월 출국요건을 폐지하는 등 각종 인력활용상의 규제적 요소를 완화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장 변경요건을 개선하려고 동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경제계, 「고용 10% 늘리기」 캠페인 전개

-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물가상승과 경기둔화 등 경제여건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 신규채용을 10% 이상 늘려 나가는 캠페인(고용10% 늘리기)을 전개하겠다고 밝힘.
- 또한 금년 하반기 고물가와 저성장이 심화되면서 국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며 신규채용을 늘려 서민경제의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5단체 공동대책’을 발표함.

◆ 경총, 「일자리영향평가제도」 도입관련 경영계 제안

- 경총은 청년실업 등 심각한 일자리 감소문제와 해결을 위해 법안을 마련할 때 일자리 창출과의 연관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일자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제안함과 동시에 이를 전담할 일자리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를 요청함.
 - 법률이 노동시장 전체의 일자리 증감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입법과정에서 사전평가를 의무화하고 현행법에 대해서도 사후평가를 제시함.
 - 경총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문제가 보다 선진화된 시스템 내에서 해결되기 위해서는 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이나 국회의 의원입법 검토단계에서 일자리에 대한 영향을 먼저 생각함으로써 일자리 인지적 정책결정(employment-cognitive decision-making)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

◆ 경총, '비정규보호법 시행이 기업인력 운영에 미치는 영향실태조사 결과 발표

- 경총은 전국 28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작년 7월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 규모 축소에는 일정부분 효과를 나타냈으나 전체 고용규모 축소에는 부정적 영향까지 초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적 요인을 배제한 비정규직보호법 자체가 기업의 채용형태 및 규모에 미친 영향을 볼 때, 응답기업의 39.7%가 동법으로 인해 비정규직 채용규모를 감소시켰으며, 이 중 19.3%만이 비정규직 채용감소분만큼 정규직을 더 채용하였으며, 나머지 20.4%는 비정규직 채용감소와 더불어 고용자체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중소기업의 37.8%가 비정규직 채용규모를 감소시켰으며, 그 감소분만큼 정규직 채용을 증가시켰다는 기업은 1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경우 61.7%가 아직 차별시정조항과 관련하여 대비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 55.8% 기업은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한 실질적 필요조치로서 기간제 사용제한규정 폐지, 비정규직 일자리를 확보하고 처우개선에 노력해야 된다고 응답함.

◆ 민주노총, 비정규직법 전면 재개정 요구 성명 발표

- 민주노총은 허술한 비정규직 보호규정으로 인해 외주화로 인한 비정규직 해고가 급증하고 위장도급이 확대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보고 비정규직법의 전

면 재개정을 요구함.

-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문(비정규직 사용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고 50세 이상은 비정규직 사용기한 적용대상에서 제외, 2009년 실시되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비정규직법 적용을 유예하고 파견업종 허가규정을 금지규정으로 전환하고 제조업의 생산공정에도 파견근무를 허용)을 노동부에 제출함.
-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심각한 사회양극화의 고통을 비정규직에게만 전가시키려는 사용자들에 대해 정부는 분명한 처벌 및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를 철회하고 친재벌 편향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KL**